

# YAA

# Trend-Spotting 2006

##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지점들

갤러리 현대 7.13 - 8.2



### 지

시제목〈Trend-Spotting〉은 경향·흐름을 의미하는 트렌드(trend)와 어떤 한 지점, 작은 점을 의미하는 스폟트(spot)를 합성한 단어이다. Spot을 현재 진행형인 -ing 형태로 등사화하여 말 그대로 '트렌드에 점 찍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보았다. 즉,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점들'이자, '트렌드를 만드는 각각의 지점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 전시는 통합된 하나의 미술계 트렌드가 무엇이든하고 딱 잘라 제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7명의 작가가 만들어내는 각각의 세계, 지점을 보여주고자 한 전시이다.

한편 〈Trend-Spotting 2006전〉은 갤러리 현대에서는 처음으로 기획한 국내 20 ~30대의 차세대 작가들로만 이루어진 젊은 전시로서 앞으로 갤러리 현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전시이다. 갤러리 현대는 그동안 뉴욕, 런던, 파리, 일본, 중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멀리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를 개최해온 바 있다. 이번 전시는 그간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온 것이다. 주로 국내 출신, 원로 작가 내지는 해외의 유명 블루칩 작가들과 일해온 갤러리 현대로서는 이런 전시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통할 만한 탄탄한 실력을 갖춘 국내 젊은 작가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대 중반 작가부터 30대 후반의 작가까지, 의목적인 젊은 작가 7명이 만들어내는 작품 세계는 모두 독특하고 신선히다. 각자의 세계는 달라도 이들의 작업을 넓게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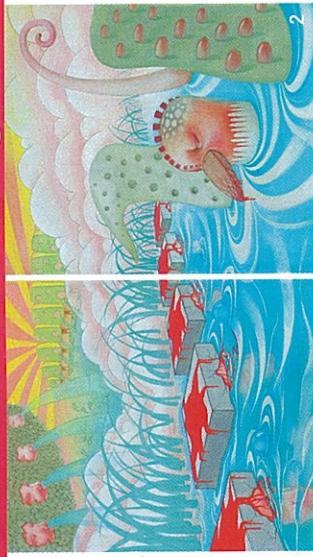
경'이라는 하나의 카뮈드로 묶어 보았다. 풍경이라 하면 으레 떠올리는 산수화를 그리는 서운애는 이를 중 유일한 동양화 작가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개념의 산수화가 아니라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서운애의 산수화는 작품마다 자신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들이며 풍류를 즐기는 무릉도원을 보여주며, 산수와 운동을 결합한 '스포츠 산수'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실내풍경을 그리는 남경민은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심리적 공간을 만드는데, 거울, 투명 유리병, 깃털, 화면 기득한 나비들이 실제와 흰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미술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육망과 흰상을 담고 있는 동시에 소외되고 불안하며 상처받기 쉬운 예술가의 미적 자의식을 보여주는 내적 공간이다. 한편 민성숙은 독특한 시점과 구도로 현실과 상상이 결합된 동경(憧憬)의 공간을 시원스럽게 그려낸다. 휴식과 틈주를 향한 현대 도시인의 욕망은 히들을 향해 비상하는 비행기, 보트, 낚싯대 등의 매개물을 통해 표현되며 강렬한 색채와 과감한 화면분할은 긴장과 동시에 명쾌한 느낌을 준다.

독일에서 10년 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귀국한 변웅필의 자화상은 여느 자화상과는 차별된다. 눈썹과 머리카락을 생략하고 그런 얼굴은 작가의 진허 둘이었지 않다. 정면을 응시하는 인물은 그나마도 전면 그대로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순이 나물간으로 입 또는 코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다. 자신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일그라뜨 리고 다른 사물과의 조합을 통해 얼굴의 고유한 이미지를 변형시킴으로써 작가는 자

# Young Artists' Area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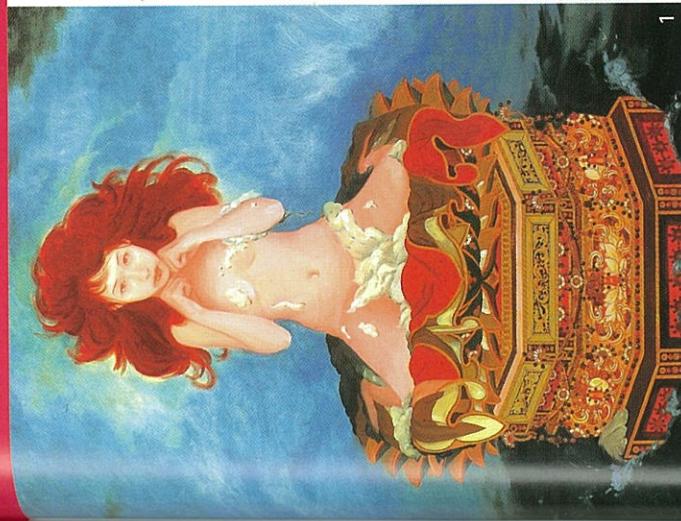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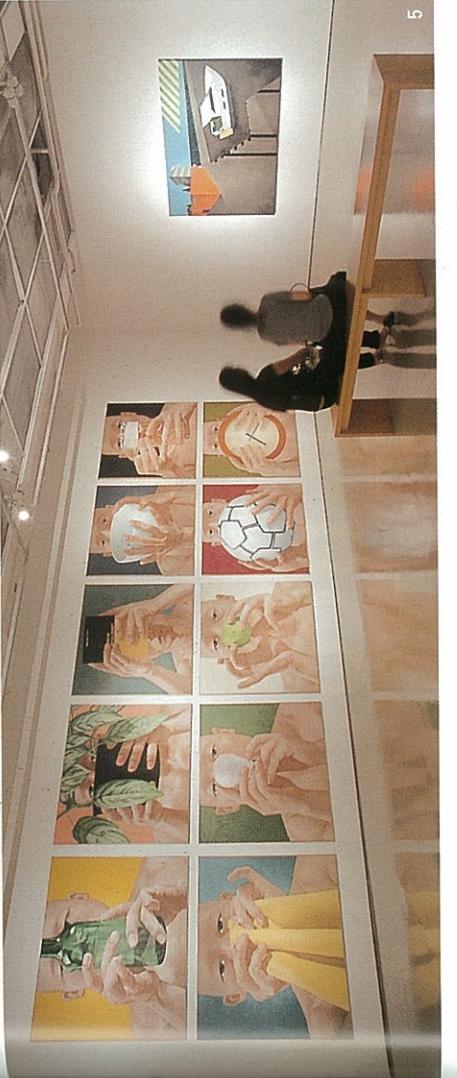
2



1

1. 난령선 (Painting 3) 캔버스에 유채  
170×146cm 2006 2. 이연미 (화물은 침범다리)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 색연필 112×191cm 2006  
3. 날경민 5기의 병이 있는 삶내종경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2000  
4. 서문애 소산유죽옹대취향도 한지에 체색  
118.5×308.5cm 2006 5. 벽웅필 (한 시림으로서의  
자송상) 연작 캔버스에 유채 130×130cm(개별작품)  
2003(원작) 민성식(보트의 꿈) 캔버스에 유채  
145.5×227cm 2006(오른쪽)  
이해 신영미 (선인장) 패널에 아크릴 100×60cm  
2006 원족페이지·원쪽부터 서운애, 순유정 큐레이터,  
이연미, 벽웅필, 민성식, 신영미, 날경민, 신병선  
배경작품은 민성식 <피자로 기고 싶지 않하세요?>  
캔버스에 유채 260×324cm 2005

5



4



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모습임을 말해준다. 즉, 변웅필이 만들어낸 자화상들의 나열은 미치 풍경화와도 같은 인간 존재의 자형도를 보여준다. 한편 신영미의 그림에는 자신과 닮은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꿈속에서나 나를 범한 몽환적인 풍경의 세계가 펼쳐진다. 검은 머리를 길게 땋은 소녀들이 숲에서 그네를 타거나 나무에 거주로 묶어 서거나 오리를 타고 노는 장면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내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 나아를 짐작하기 어려운 풍성한 느낌의 소녀들은 자아를 찾기가는 과정에 서있는 자기의 현재 모습이다.

참여 작가들 중 나이가 가장 어린 대학원생 이연미는 초기적인 상상 속 풍경을 그려낸다. 언뜻 동화책의 예쁜 삽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섬뜩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방금 뭔가를 잡아먹은 듯 부리에서 피를 똑똑 흘리며 흙죽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새, 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풍경인지 모를 그로테스크한 동화의 세계를 보여준다. 희면 전체에 깔린 부드러운 파스텔 톤 색채는 텨에 감추고 있는 모종의 잔혹극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시침미를 떼여 이 어린 작가의 상상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한다. 마지막으로 신병선은 짧은 박 이라는 팀을 결성해 수년간 팀 프로젝트 작업을 해온 작가이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개인 작품 전시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인 그는 신선하고 특별한 인물화를 그린다. 고려대학에서 차용한 연좌대 위에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처음한 벌거벗은 여성이 앉아 있

다. 이 두 가지 이질적인 것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충돌은 불경스러우며 불편함 미지 불러일으킨다. 성(聖)파 속(俗)을 대표하는 아이로들의 불온한 결합은 내용면에서 이질적인 풍경일 뿐 아니라 회화한 컬러로 세밀묘사된 좌대와 상대적으로 대충 그려진 듯한 여인은 표현형식 면에서도 펍작이고 키치 적이다.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산이 상상하는 파라다이스의 세계를 그리든, 또는 꿈속의 풍경을 그리든, 외롭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그리든, 7인의 작가는 모두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자신의 주변, 즉 미시적 영역을 작업을 통해 세련되게 가시화하고 있다. 구상희화라는 다소 전부한 형식의 카테고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적 형식, 개인적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언어를 통해 그려나가는 이들의 작업은 회화의 새로운 지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 2006년을 시작으로 갤러리 현대에서 해마다 선보이게 될 <Trend-Spotting> 전에서 다양한 흐름, 다양한 시각, 다양한 언어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미술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지점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